

新小説

彈琴台



103

Inches

1 2 3 4 5 6 7 8

Centimetr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탄금

(彈琴臺)

仁川府牛角

任

다더니 잘싱겼다 고머리를

디일또와셔 놀나고 하셔오

나고 그리시드란 말인가

거시로구면

서리지촉하느식바람이산들々々 불더니 룡유원시벽연
목차일을쳐노은듯이 뒤덥혀잇는디연과위로우썩々々
디드러선것갓더니 계족산상々봉으로북으러흔히가비

노를싼쇼스올나오며나 무가지에밤쳐도록밋쳐던이슬

설이니그떡나글시작을하여

이젧것을불게하코엇더흔히인하니조양을질머지

무손글을넘어

리분흔지집혔든집히이로길바다을쌍치고펠셔쥬져

그어룬이글을읽어야스름된다

흐춤도라보다가벌덕이러나한춤가다々또그모양

가다々하느것이부지쥬달니강가에올이르려셔

다리고하셔는말슴이탐이다

과동할굴속을츠즈가라느제비들이회의를

가도아니하코집히이을확넙다잡고섯스니이

편말박승지의아달만득이라

만득이부친박승지가나히늑슌이넘어만득이

가장성호얏스면하느마음이그익발바당의

서병이만은계장슈할장본니라더니만득이

식음하고요흔지박승지가드려오닛가만득

간피이니복학이니역질이니홍역이니돌이
고생그리알아서남의집아희들처럼복슬
복손이가되야키는자랄줄모르고얼골에노랑
을못하니타인이보기에도답々하려든음을더
기아니못도록의술이뚝々하다는스름이면불워
조금도관계를시보약을지어다가하로숨시로머
장이되고집안에지산은약치로다나간다
그이어면나리씨논그남편이그리할스록만득이
으로쓰리더라

하로논유모가만득을업고드러오는뒤흔손의철죽뚫송

(만)어머니이뚫보아저근너치의관집뒤동산의아쥬이런

(리)이이남의화초로보라고심은뚫은웨더리만히씩것의

(만)안나리가아니씩것서그집의슈염만히논어룬이나르

씩거쥬엇셔오

(리)무엇을네가거짓말이지

(만)에구춤말이야오

(리)여보게씨네어멈아기말이춤말인가

(씨)춤말이야오그뒤영감게서아기업고지니가느거슬보시더니잘싱겼다고머리를

쓰다듬으며동산으로다리고가서々뚫을씩거쥬시며뒤일또와셔놀나고하셔오

리씨부인이썰々우스며이만치못싱긴즈식이엇의읍슬나고그리시드란말인가

그영감도즈손나노라남의즈식을드러케스랑하셔던거시로구면

(만)어마나나는리일뚫터글을읽글터이라

(리)네가언은식글이다무엇이나리후년이면네가여덟살이니그뒤나글시작을하여

라여섯살이라도숙성훈의네살막은이만도못훈것이무슨글을읽어

(만)그리도나논리일뚫터글을읽어나가가라쥬어요그어룬이글을읽어야스름된다

고하셔던데

(리)여보게씨네어멈그영감이아기다려글을읽으라하셔던가

(씨)안아탐이다그영감게서당신씨님의기을다리고하셔는말습이탐이다

(리)그이기논아마되야기보다클셈감안이뚫자그이가을에몇살인가아마이이듯갑

인지흔살아리인지그러케셈되얏지

(씨)예그셈되여보여요뒤이기보다별노더숙성할논지논알슈업셔도약기논조디

다약던걸이오

(라)계집아희가되여서그러하이그러

리씨부인이만득이글읽겟다는말이웃지시듯하고요흔지박승지가드러오닛가만득

에 등을 어로 만지며 이 조식 보오

(박)웨그리오

(리)오날제유모의게엄혀건니말치의관집애를갓다오더니별안간에글을비오갓다

고조르구려

(박)아모럼글읽지양반의조식아글아니읽을사웨그집웃던아희글읽는것을보왔던

가오

(리)안이라오그량반이조식글을더리고글읽그라고훈게하노말을듯고그린다오

(박)허허뫼모에삼천지교가책올코아희들이라노건보고듯는디로하노법이안이오

구려

(리)그러나그친구도나이오십여세에아달은모두고절하나을세상을노것처럼그리하

(리)그이가엇더케성것소속하흔가오

(박)응그것곳잘성기엇노길

(리)그러면우리만득니와흔인을정히두엇스면

(박)별소리를다하오아즉강보에것을정흔이다무엇이오

박승지는쇼년씩벼살단일덕에권문가게토심도박고마음과갓지안닌일이심상팔구

가되야스환에뜻지읍서산야에서남은세월을보느기로결심을하얏건니와최의관은

그와반티가되야괴어히도흔과회를엇어고판티작으로정처상일을주무히볼작정이

러니뜻지잇스면일이필경된다교류경숙년만에비서승으로당상을하더니운슈가티

통하야벼슬을스다리올나가듯하야외직으로감니관찰스니직으로협판티신짜지하

야그집을아조셔올로반이하얏더라

박승지는치티신의조과뜻과갓지안임을넣쇼하야뉘밧게성각도아니하교날로만득

를글으치기로만글을하다가그렇게만득에나이십삼세가되닛가상주읍황진스에

절에게장가올드러죽시신부례를하야왔는디신부가극가하야빅스에가감이라철십

여세두노인니여한이읍슬듯이조미를보더니

세상에밋지못할것은하근이일라라감피스름하게별노티단히알쳐도아니하교박

승지니외가흔달동안에연첩세상을버리디장성한스름이라도줄지에부모초상을당

하면정신을슈습키어려오려던함을더아모철모로노히들이리요그리도만득은남

조이라그설은중에도집안스름들을더리고초중법절을준비하야슈원선산에안장을

하얏는디황신부는아직혈과가긋지못하조절로그중외시를남류달이하야가슴이울

닝을녕하교스디가무단히열녀신데잇난근쳐로가기실천마는웃지하노슈읍서억지

로참고조석곡조석상식을지니는디낮에는집안하인등이스름이오락가락그렇게저

렁성하닛가오혀려얼마썸진정을하겟스나희만썸쳐저어슬々히오면머리뺏치

좁벳々々등골에쌈이불퍼붓듯하며공연이어서무슨소리가나는듯누가분명드러오

는듯인히경흔병이드리식음을전폐하교천만부당흔헛소리를더러々々하며위셔하

야알타가인히살지못하니가련한만에신제가스고무천한몸뿐남아더타
박승지성시에부터제일친근히단이며티소스을보살피는주오위장이라는것은본티
그집비부로위인이니흥하야속으로는상전에지물들은근히죽을니면서도의양으로
논리스에진심진력하는체하니순고한박승자는색수족으로만밋고제정거리를모다
그자를맞겨다가작고를하얏스니무엇한가지가온전히남아있서슬이요다만눈의
보이는제잔증물과떠가지못하는전답뿐이라

만득에년과논비록심오제이전어림으히나원리법절이속성하야집안형편이그지경
되는것을보고정신을심분차려일체전답문권을조고마호보에쓰서아모도모르게후
원스당집마루밋히다색감초고주가나날마다감언리설노정리를하야이디를하야별
사별사쇼리를다하는것을도모지듯지아니하니주가가만득에게향하야불량한마음
이슬몇시들더라

하로는만득이가색곡을하고침소로드라와적사히위인방에홀노누어집안형편을성
각하니과가막쳐혼자한탄한말이라

에그하는남도야속도하시지우리아바지어머니씩서십년만더살으셨드면집안이
이러케결단이아니났을걸………제상에못견딜기손루티독자로강근지속이업

난것이더라병신일가라도흔나만있게되면집안일을더러의논이나할타인디……
남녀하인드른약간있지마는모다집안도저절히니기로눈설이밝었고소위신임

홀다는주오위장이라느스름은나보는데얼얼냉얼냉실심으로하는듯하나감만히하
는거동을보면그속이감감하기가아조말못되는디………

큰나큰집에스름이별노읍서처처이렇뒤어잇스닛가쥬라는쥬는동이쥬까지모다
도회를하야예셔도부스럭부스럭제셔도부드득부드득눈만감으면자과부모병석
에누어신음하던모양자과손목을잡고락누하며유언하던소리눈에완연히되는듯
귀에정녕히들이는듯듣기턱을도록잠을못조고버리가흠신첫도록올다가별씩
이러나방문을열고니다보니침침철야에지척을분별하기어려운티무슨괴악한연
과가홀씩코에가맞치는지라마음에덜컥이상히서바지퍼침을흠겨잡고밧그로쥬
여나가티문을열야흔죽문이밧그로단단이잠기엿는지라눈이둥그리지며겉이나
서이리저리살펴보니이귀통이에서도연과가무역무역더귀통이에서도연과가무
역／＼불길이활／＼니러는는지라

한다름에사당집으로드러가마루밋헤감초아둔문서보을집어가지고슈도구멍으로
피어나와본죽그동안불이뒹열하야전처집이조운동이되얏는지라뒤스산으로멀죽
아니피여올나가갓분습을잔신히진정하고너려다보노라니쥬가가멀죽이서공연히
오락가락하며랑속비드리각기늘나창황이모여오는것슬손짓슬하야갓가히가지못
하게하노말이

이이들갓가히얼신마라큰일나지초가집과달나기와집에화지느기와스장이탁탁

뒤면 스를 상하기가 청경쉬우니라 더불이 수면 평도 랑스닛가 무슨지도 불속에를
드러가나

한며동의자박이 각기 켜가지고 온물을이리저리 세언저버려조곰도 불살싱각을하지
안논보양인중그집이되춘중갓뜨면동리남녀라도모혀와그불을잡어스런마는본티
막승지가남의집과련장접육하야살다가남의집화지에자기집까지손히을수창당하
고는일부러산밋의선곳에다사로집을짓고살던터이라좌우에멀죽멀죽

이형량

몇치만잇슬싸름인고로일부중스름이그밤의화지느거슬아모도물났더라

만득이가런형으로목숨을살아나와감안히휴가의거동을보고흔자싱각하기를

던하에무도흔사름도보겟다번연이니가더속의잇는줄아니다른하인이셔름셔름
것들드리도동독을하야가며뛰어드러나를구히니라고하야제도리라던지인형
에가하거늘도로혀갓가히오는스름까지저희를하고나타죽느거슨조곰도엇더케
알지안이하느모양이니제심장을죽기알겟고다른당속비로말호되도모다저놈에
죽쳐썰아니라그지휘명령을받노라인죽이가어림을시살아나온양을외었다

논목전에불촉흔히를당하기가심상팔구가되겟스며다놈이니집지산을모다건물하
고유위부족하야또나를살히코저니집에충화흔거슨다름아니라부동산으로잇는전
답을마자썰아스라고릭방으로썰이다가듯지아니하닛가나를마자업시고제육심을
쳐오자는게척이니니가이문서만몸에씩진이고이길노자최읍시피신을하얏다가셔

서히가사를정리하난것이올은일이다

하고개를열고문권을니여썰썰뭇치어뒤에씩차고그산을휘더듬어삼랑진을당도하
니그밤이처박지못하얏는티두언덕에못식은꿈을쳐여있다금한마디식괴상흔소리
로울고들가는티이리저라일길에리인거의최가뚝뚝넋더라

만득이가버선발로허리띠도못씩고창황중게까지와셔스스로신세를싱각흔죽천디
가아득하고갈바를모르겟는지라갈가에그도로펼쳐져안저좁여으로쌍을치며부
모를부르지저목이밋쳐통곡하다가별안간에울던눈에서번기가번적느며시덩신이
나서썰너러나며

에니가이리히셔는안이되겟다아못도룩살아서말스죽이피신을하얏다가집안
을바로잡고셜분을쾌히하야하겟다

하고그길로전々결석하야량산통도사에을드러갓더라

통도사주승운유암은이십전에출가하야찰십이되도록불경에웃더케잠심을하얏던
지거짓말잘하느사름들은운유암두하키에몬지가넋치식은쓰여있다고할만흔티무
론무슨종교이던지장구흔세월을전심치지곳하면신묘흔디경에를이르느법이라운
유암이그모양으로불교에헌신하더니로리에느아조영통흔디경이되야사름에선악
과장리에길흉을능히차착읍시짐작하느티만득의움을보고다른중드른그형식이슈
상하다하고절에머를지못하게하느것슬운유암이여러중을만류하고관곡키영접하

야조기와 함께 거처하며 공부를 근간히 하니 만득이가 운유암에 우뚝을 감복하여
머리를 깎고 상조되기를 조원하얏더니 운유암이 더스만류하는 말이다

(운) 쇼승이 별도로 아논바는 업스오나 상공을 뵈온즉 풍만흔 골계과 청수호의 석이 결단
코 산중에서 적막히 일성을 보니 신덕이 안이오니 망녕스된 뜻을 두지 말으시고 산수
요흔이 곳셔 수년 공부나 더하시다가 산밖그로나아가스무궁한 복록을 누리옵소서
(만) 풍상에 놀난 혼이 세상에 뜻이 업고 오작 산문에 의탁하야 일성을 청정히 보니 고쳐
하옵는 이다

(운) 쇼승에 말이 비록 불스하오나 짐작하논바 이잇스오니 부디 고답지 말으옵소서
만득이가 운유암의 말을 거스르기에 어려워하시그터기구를 못하교 인히 등도스에 있
셔 수년 동안을 주야 불계하교 열심으로 공부하논데 운유암이 비단 불경에 만통두할
뿐 아니라 시서벽가를 모를 것이 업슴으로 만득을 구전심수하야 문필이 당세에 가위득
보라 할 만치 되얏더라

하로 논 밤이 이슬하도록 서로 경의를 문답하다가 운유암은 잠이 들고 만득은 홀로 잠을
못들고 누엇는디 반송위로 울련히 올나오는 달이 동창에 빛취엿는디 네 첨아에 풍경소
리 바람을 따라 뵈그런 형그런 혼다

만득이가 문득 집안 일 생각이나서 슬며시 이러나 창문을 감안이 열고 밧그로나아가 들
위로 이식도록 오락가락하노라 이별한 간에 운유암이 압희와 손목을 탁잡으며

(운) 웨아니 줌으시고 이 밤에 밧게나와 가나서나 잇가

(만) 달리 하도 밝기로는 아와 구경을 하논 이다

운유암이 우스며 손목을 잇슬고 조괴 처소로 드러오며

(운) 상공의 학식이 그 만하면 족히 당시에 양보할 곳이 업슬지니 산문에 울적히 더류련
치마르시고 밝논날의 곳치행을 하야 산밧그로나아가옵소서

(만) 소성은 집이 읍논사람이라 존스를 하직하교 장초엇의로 향하오릿가

운유암이 눈을 감고 한구하안졌다가 필연을 보니 여글세귀를 써주며

아직은 상공의 덕이 업스나 장초고루 갑제가 성길지니 요금도 상심치 말으시고 길에
나서 항상 이세귀 글을 명심하옵소서

만득이가 그 글을 밧아보니

요금도 달스밤에 원수가 은인이 되고 연광정가를 바람에 잠스근 그짓인연을 만나고
란금디저역베타우연히 길인을 만나 단이라 하엿는지라 지삼늬으며 글뜻을 무른디

(운) 그글 뜻은 쇼승도 모로논니 갑히 무르실 것이 아니라 스스르 연구하야 진히 하시면
조연 짐작하실바잇슬가 하논 이다

(만) 존스의 말 숨이 그러하시니 글 뜻은 감히 다시 못잡지 못하거니와 지금 존스를 하직
하오면 언으날다 시비를 논지 심히 창결하도 소이다

(운) 존공이 스번에 산문에 나가시면 조연 글을 하시리니 엿지다시 쇼승을 추지시오

며설혹몇히후치지신티도소승의천후나이지금철십이머쓰오니미구에황천교
혼이될지라

웃지다시외을기를바라오릿가부티소승은싱각지말으시고무량호복록을누리소
서

말을맛치며묵々히눈을감고조으니만득이가다시못지못하고날이밝기을기디려운
유암을하직하고동도스를쳐나산밧게를나아와더라

만득이가향할바를모르고길가에이식도록안저운유암의쥬던글쑥을궁구하다가성
각하기를

고금도달밤에원슈가은인이된다호앗스니시험삼하고금도를쳐저가보리라

하고여러날신고호야고금도로건너가엇더호춘락금직호집에을쳐저드러가망문투
식을호노라니소년들이너아다보고밧고차기로구축을호나

이이녀원호하나

우리집에는직실도너잘만호티도엄고저녁밥도다지낫다진작다른집으로나가보
와라

하인을불너니쑥고티문을열나호거늘만득이가일세점을고갈곳지망연호야우둑거
이섯노라니사랑으로근쥬인이니다호더니소년을쑥짓고만득을사랑으로불너드
려석반을쳐려다쥬며거쥬와성명을쳐쳐로못난지라만득이가싱각하기를

집안이멀망호터에선천의취스즈를로출호는것이창피호일이라

(만)제집은충청도단양읍에살앗습는티어려서부모를일코스면팔방으로유리표박
호앗습으로성명을괴어지못호읍고충간의언의박씨의집에가몇달잔잇는동안쥬
인의성명을싸라박가로형제호야박동박동호나

(쥬인)허々が금호호호로다이의박가히롭지아니호고나성이라호는것이엇디본티명
호것이잇다더나

호고밤이스읍호도록쥬인노옹이만득과수작을호다가만득에유식함을보고입에침
이업시칭찬을호나

(쥬인)허허고마온아호로다조고여성으로이갓치단이며언의겨를에공부를그쳐림
유여호호앗스나

(만)제라는공부가엇의잇깃습닛가의지호곳지업스와언의글방에가고용을호며여
리너머글로약잔비왔스오니그글이오작호음닛가

(쥬)여리너머글로더러케섬부호기는더욱희한치아니호일인가이의네외양이던지
학식이저만호고서망문투식호는것은티단히앗스오니그리지말고아쥬니게잇서
우리아히들과동접이나호야공부를호다가차차괴회를보와거취함이엇더호나

(만)스고무천으로갈곳지업는스름을쥬인장씨이치림판티호음시니은혜티산갓
스와몸들곳을모로호이다

주인이 만득에 말을 듯고 심히 깃거워야 즉시 자근스랑의 셔글을 넘는 소년을 불러서
레로 인사를 식인다

(주) 어이 너의들이 박동과 서로 인사하여라 나 혼너의 보다 혼두히 아티라도 공부는 너
의 선성님이 너를 한다

박동아 여괴섯는으히는나의 큰 자식이 오더괴섯는으히는나의 들지 자식이 오이의
논나의 족하일다 너지식형데는지차이다 마는너 족하는우리 큰형님 맛아 들인티 맛
치작난몬고도모지글을아니넘는구나 네가 괴위니 집에잇게되얏스니 아모도록
힘좀써잘마라쳐스름을몬드라다고

(문) 제가 무엇을아옴잇가 서로모로는것을비오깃습나

세 소년이 몬득을다라고저의들쳐소와서 친형데다름업시 정속하게지니며글시도
쓰고글도넘는티물갓흔광음이어언간수년이 지나몬득의년광이 심철제가되얏더라
몬득이가올져흔회포가세월마는티로더하야장차주인을작별하고다른곳으로마를
작덩이더니하로는주인노옹이만득을불너엿히안치고이말더말다가혼가지문데
를데출한다

(주) 어이 박동아 너가 내게 엿청을 말한가지마잇는티네가듯깃는나

(만) 무슨말습인지제힘에맞치는일이던봉형한다뿐이오닛가

(주) 허허허그럴터이면너가말을하지가저식삼남덕를두엇는티손위로남조형

제는입의성취를식엇건이와막니로절자식은이곳에엇의가합흔신랑이잇는나지
금나히열여섯살인티아즉식집을못보너여우리티외가홍상근심중이더니라

이이내자식이씩부덕잇슬는지장달은못하겠다 마는과히용렬치는아니하야여범
인동하니 불필타구로네가내사위가되면잇더하겠는나

만득이가그말을듯고침음히안졌다가

(만) 쇼성갓치용우흔위인을드립다아니하시고동상익을숨고져하시니 쇼성일신의
영화로옴은한량업스오나 존귀흔령에게육됨이불안하도소이다

(주) 응그런것스의레답은고몬두어라 주루흔너식으로박동갓치영록흔자적과백년
가약을미즈니 자식의영광이된다허허허

주인노옹이즉시안으로드러가자괴마누라와혼인당흔이악이를한다

(로옹) 우리아기 혼인을당하얏쇼

(마누라) 엿던신랑과

(로) 우리집에와잇는박동이근본은엇던아히인지모로나외화도극히단아하고문필
도구히섬부하기로지금아조저를불너안치고내스위가되라고면티하야말을하얏쇼
(마) 애그잘하섯소아기의나은점과년하야가고맛당흔랑지는별로업는티더고르
며별수잇쇼나는글은모로오마는박동에인물이하도출중하기에속중으로더런사
위를어덧스면하얏는결이오그리면티히말습을하시닛가박동에티답이무엇이라

고하여오

(로) 박동이내 말을듯고 지지자슴사양하다가 필경 허락을함더나다

(마) 그러면과년흔신랑신부이니 어서하로박비탁일성례을식이지오

(로) 을쇼내마음도그려하오

하고부라々々 혼슈를작문하야길일을가리워디례를지냈는디 지즈가인이셔로맛나
은정이날로급허가니 문득이가성각하기를

내가각종풍상을겨그며덩쳐업시단이다가인제는빅년가속을어덧스니신세가이
로쫓쳐차랑흙을면홀지며일성의근거를잡게되갓스니나의품에품고단이는전답
문권을귀치안케가지고단일것아나라나의실인을맛겨두는것이가하다

하고그날밤에문권풍치를품에서글너녀신부를쥬며

(만) 여보부인이것엇의잘두오

(신) 그것이무엇이야오

(만) 이것이다른것이아니라우리집세전하야오는전답문권이오내가이모양으로동
서표박하야단이닛가엇다맛겨들꽃이업셔자느네나몸에다진이고다나덜터이오
신부가희석이문면하야바다의장에맞넛초밭게쳐와자짓결하더니마누라가그설의
방을향하야

(마) 이이아가누어자느나밀양큰아바지쳐서오셨다어셔와되와라

(신) 예아직아니잠이다하고안방으로드러가서자기빅부에게절을하더라

빅부라는자가

허々성례를하더니더커되이난고나거기안저라

하더니쥬인으로응늘도라보며

여보게사위는니집으달인가혼인을하면아모리정도말드리도내게기별을하지우
리형데에설자식이라고는그것혼아썬인디성례시기는것을못보와셔마음에좀섭
々하이

쥬인으로응이공손이하난말이

형님께기별을하야들일성각이엇지업섯겟슴닛가마는이러케오실줄을모로고근
력업스시고총요하신티오시라기도할슈업고또는저를식집을보느는것이아니라
디릴사위모양으로아직집에다저의녀외를들터인죽아모찌던지오시면보시겟기
에전위하야기별을아니하얏슴이다형이썬々웃고

(형) 요란시려위귀왕지닐일을말히무엇하나내마음에설섭혀셔혼이약일제그러느
디릴사위로하얏다하니사위집이디단히반한흔모양일제그러빈한하면상관이나
사위문썬々하얏스면고문이지

(데) 저는사위의자겨하야만보고혼인을지냈슴이다저의부모를일죽여희고동서로
표박하다가우리집으로와셔망문투식을하느것을감안허본죽외양이믹우썬々히

비이기에 밥을 차려오라 하여 먹이고 슈작을 하여 본즉 문한이 유여하여 결식단이난
거앗갑기에 집에다 두고 희들공부를시키게 하였더니 두고두고 볼수록 작인이 극
가흔것을 보고 곰곰 생각하노라 우리 집은 별슈가잇쇼제 근본은 하녀 한사람이 고위인
만취하여 혼인을 지니 습니다

(형) 그러면 제 밋천이라고 노피천이 품업논 자일제 그라 그자 아니면 설자식 그티로
힐나고 그리 급급히 혼인을 지내 단말인가

신부가 첫해서 그 빅부에 말을 드르니 슬며시 분한 마음이나 서아 모말습시 이러나 자
침방으로 가서 남편이 주던 전답 문권을 쓰다가 지고와 자괴 모친을 주며

(신) 어머니 이것 좀 보셔오

(마누라) 그게 무엇이나

(신) 저의 시덕 전답 문권이라고 맛하셔 잘 두라 고 주셔오

(마) 식덕 전답 문권이라 너의 식집 말이냐 너의 남편이 맛기더냐

하며 마누라가 업던 귀운이 혼가락 식로 나서 오나 이리다 오엇의 보자
문권을 받아 자괴령감을 보이며

(마) 여보령감 우리 사위가 아모 밋천이 업논 결인으로 알앗더니 다 쇼잔 전답이 잇는 것
이 오구려

(령감) 글세 이리 주오엇의 좀 봅시다

하고 문서 보를 글으고 이것저것 뒤적 뒤적 보더니 형제 두놈으니 열골이 졸지에 변색을
하며 무한 당황하녀 이다가 주인령감이 그 설다려이 밤이 드러다 어서 가서 자고 일죽
이 일어나 거라

신부가 대답하고 이러나며 문권을 집어가 라 하니 그 빅부가 게 좀 두어라 내가 눈이어
두워 자세 못보았더니 일박거던 자세 좀 보고 주마 신부가 어른의 말에 어려워서 모
말 못하 고 자괴 침방으로 물너가 더라

그집 주인은 별스름이 아니라 밀양 박승지 집저 산을 모조리 도적하여 노고 유의 부족하
야 박승지 녀의 구물 후호 그 들만득을 귀신 모로게 죽이라 고 티문을 것호로 단단히 잠
으고 압뒤에 총화를 하던 주오위장이 라 주마가 본리 전라도 고금도 티성으로 살기가 곤
궁하닛가 제오 만집에 두고 저논이 려저 려 남의 집으로 도라 단이다가 었지 었지 하야
박승지 집에와 비부들 었는디 제집은 그집 제전지 비라 여려하네 중주가 너와가 데일
천이잇슬뿐 아니라 주마가 잔고 음흥을 겸비하야 었더케 박승지의 비위를 잘 맛쳤던지
아조일긴이 되야 지정거리에 신임을 하얏는디 주마가 스름 놀코트면 상전이 그리 홀스
룩아 못조록 음을 바로가지고 씨살만 한것이라 도 눈을 괴이지 말어 야가 홀터이 어늘
박승지에 눈만 가리우면 그저 집어 제랑 타을 하야 썩리가 맛있게 제오 오게로 보되 여는
빛을 작만 하다가 급기박승지 작고 혼이 후에논 각처에 임치하얏던 금전을 한푼이나
너여 노코 몰슈히 도적하야 제오 오게로 보되 후저는 제상전에 집천여 셔하논 전답을

마자들이 먹을 작덩으로 철모로 만득을 엮은 이 박답이나 이 미를 자어 디 밧치며
 마른 나 이 미를 자아 모전 작과라 밧을 늦추었던 가 디를 팔아 세간을 작만 자별과
 파피하 말노다 씨여도 만득이가 일절 뜻지 아니하니 제가 진력을 하야 다시 그 디 귀
 를 못하고 잔게가 드러가기를 이집이외사로 고하네 비가 제말이면 함쩍 못홀터이니 모
 야 무지에 불을 질녀 성가시러 온어 린상 전한아를 죽여 업시고 제것을 만들이라 작정하
 고 그날 밤에 디문을 것호로 잠가 만득을 못나 오게하고 밤중의 총화를 혼일이라 그 불을
 잡지 안코 전치집이 거진 다 탄 후에 야공연이 아리위동리로 도라단이며 불이 야쇼리
 를 지르며 쇼동을 하다가 그 집을 탄지 혼음음을 쓰러 담아 만득의 신데인 듯이 판과을 갓
 초와 박승지 산발치에 파묻고 각처에 잇는 전답을 제것 못치 추슈를 하야 먹으며 만득이
 살아도 망홀은 꿈에도 생각지 아니하고 다만 유감되기는 그 밧그논의 문권이 업는 것이
 라 본관에 실화 혼일노 주선하야 잔신이 판입지를 닐여가 졌더니 가 잔스에 무슨의 논홀
 일도 잇고 제자식 공부하난 것도 바탕으로 오에 집에 왔다가 천만 뜻 밧게 족하설
 의가 저온 문권을 보니 눈이 번쩍 뜨이고 의심이 더러 나셔 족하설을 쫓초보니 고저의 형
 데 씨리 공논하논 말이라

(형) 여보게 이케 웬곡절인가

(아오) 글세을 시다

(형) 그 집 불탈적에 닐가 썩셔셔 목도를 하얗거니와 어리 천기 샅기 한아나 오도 드러가

도 혼적 이 업는 디 이 문권이 었더 케나 왔스며 쇼위신랑은 웬자인 디 이 문권이 저의 집세
 전지 물리라고 혼단 말인가

(아오) 신랑이 박승지에 달인 가 보이다 그려

(형) 무슨 소리야 박승지야 달이 번연이 불에 타셔 죽었는 디 또 원박승지에 달이란 말
 인고

(아오) 그러면 문권도 불에 타슬터 인 디 이러 케나 온것을 보면 문권이 절노 날아 왔겟습
 닐가 필경 사름이 닐왔지오

(형) 그도 그러히 디 판절 밧는 날 내가 신랑자를 보면 짐작이 나셔 겐지

(아오) 형님 보시면 알으시 겐지 오만은 위인이 상사름에 자식은 갓지 안이하고 또 의심
 시러 온것은 제성은 모로 닐터 박가에 집의 의탁을 하고 잇섯 습으로 박가 형세를 혼다
 하논 것입디다

(형) 감안이 잇게 아 마언의 괴약 혼놈이 내게 교를 루설하야 박승지야 달만득이가 제 목
 숨을 살나고 밤 낮 씨고 단이던 문권을 그 디로 가지고 도망을 하얗다가 년 씨가 맛노라
 고 이리로 온 모양이니 오허려 잘 되엿네

(아오) 그러면 었더 케하시 려잇가

(형) 리일 첫 새벽에 제가 면저와 보기 전에 내가 감안이 문틈으로 엿보아 만득이가 아나
 고 보면 관무스 촌 무사 만분다 형 혼일이 오만일 그놈 갓흐면 내가 피신을 하야 제눈에

아니 쓰윽다가 밤들기를 기다려 인정의는 막 절하지 마는 죽여 읊시세는 그러
 (데) 그 슈밋게는 다 시업기는 호오마는 작인이 심히 앓가 온중은 기신제가 불상치 아니
 호오

(형) 이 스름아 그게 다 무엇이 야 남드르면 흥보네 인제는 우리가 이만치 사니 넷습관은
 곳쳐야 아니 하나 점자는 집에서 누가 쓸다려오기라고 하던가 리가에 게로 식집을 갖
 스면 리스 집이라 김가에 점으로 식집을 갖스면 김스 집이라 호는니 그사진말은 고만
 두고 저놈이 분명만득이고 보면 작인이 압갑지 말고 제 상읍기로 살여 두었다는 우리
 후환이 적지 아니 할터이오 또는 그사짓놈만 손죽기로 질녀에 신세를 상할것이 무엇
 냇나

(데) 그러면 저다려마리 우리 집과 박가와 원슈인 죽살녀 두지 못할스정이라고 타일너
 주어야지 그러치안이면 편협호은 회가야 속호마음이 들썩하야오

(형) 그난 그러하겠네 마는 그리도 저다려 이르러 거던아 모조록 알아듯도 독자제자제
 말하고 또 지금 세상에 경지상가에서 도과부들이 식집을 예스로는 터우리디별이
 본리량반도 아니 오박가보다 더 나은 남자에 게지가 틀가면 고만이라고 정세를 잘타
 일으게그라

형데가 그러공론을 분사하호는라고 호는 눈으로 밤을 세우고 동이 터방안스름이겨오알
 아불만하닛가 주오위장이 만득이자는 방누구 명늘썩르고 감안이엇보더니 혀를 해々

너들으고 제아오을 향하야 손짓슬해々하며 저최소리가 아니 들니 게 감안스름이안방
 으로드러와서

(형) 그놈일제그러그놈씩타서 죽은 줄알았더니 언의름에 살으나서 여괴를 왔단말인
 가오이놈오기난 잘왔다

(데) 그러그놈이 분명히 박가오닛가

(형) 그러면 내가 범연이 보고말을하겠나 자두말스고나호는 오늘종일더침방에가숨어
 잇서그놈에 눈에 아니 띄일것이니호는 회들을어셔 불너드려오날밤에그놈을죽여이
 압바다물에다집어드리트리라 단속을하고자네 생각과갓치질녀도 불너너여스세
 부득이호는말을일으게저도조식이지설마제비말을거역하겠나

주인주마가그형의마라치노되로제달형데와죽하을불너들여전후말을일으니우
 쥬호는놈들이당장에만득을죽이자고날천다

그선놈호니죽이기적정말읍시오저의들셋이덤뵈면호우호는놈이기로못죽이겠
 습닛가 밤은기되려무엇흐닛가 당장의셔드려버리지오

주마가손짓을하며

이조식들넘어경솔히글지말고무슨일을생각하야하이라되나제거조를하다가동
 리사름이혹알면당장에는감히무엇이라호는놈은읍지마는자연인구전과되기가쉽
 상팔구인죽그아니후환거리나이지식들조급히덤베지말고있다가밤이월선들거

던이이노압문을막고더이노뒤문을막고널낭은다락에잇는큰자루에다그놈을잡
아니코씩묵거설어다가압바다물에다드리트려라
세놈이되답을호고밧그로나아가그되스식도아니되고만득이와종일도록글로론을
호더라

신부난그줄더줄모르고안방으로가부모에게문안을호더니부모의가무슨공논을
호참하다가조그드러오는것을보고호던말을썩뺏치며

(아비)곤호지아니호더나벌서이러나게

(신)판계치아니흐나다

(아비)이이거괴안거라내가너다려호말이있다

(신).....

(아비)너도알다싶히우리집이본터빈한호지아니호엿느냐

(신).....

(아비)큰아바지게셔극력추선호신탈으로오늘날이만치지니는것인되아비가조식
을죽이겠느냐이죄물을큰아바지덕셔조본을드려장스호신탈도아니오지조가잇
서공장노릇호신탈도아니오던형으로밀양박승지집에가게셔셔그령려권도로
우리집이부득명호고살게만드섯는되박승지집은그동안은조멸망을호고화지샤
지나셔그아달샤지타죽은줄알호더니죽지를아니호고살아잇고나

(신)그되조데가살하낫스면그만치감축호일이업습이다그러큰아바님과의론을호
시고우리두집세간을분반식호야셔라도그랑반을견되도록호야드려셔우리살게
된신세를갑호시지오

(아비)더런눈치업는조식보아아모럼저간에별々청절이업고보면네말되로호얏스
면고만이겠지마는이리갓가히오너라내말호거이니

호더니신부에귀의다무엇이라나죽々々호츄말을호고셔물너안조며

(아비)일은박절하다마는네가성각호여보아라우리집이무슨투철호랑반의집이란
말이나또식집곳가면남편은잇스려니와부모야호번죽으면또싱길슈가잇느냐그
러니쇼위네신랑이라노자를오늘밤에처치를호야업셔여우리두집에후환을아조
코너는다시가합호신랑을스면듯보와식집을보니쥬마설마널니구호면박가만
호신랑이어되업겠느냐

(신).....

(아비)웨되답을아니호느냐네성각에내말이를여셔그리호느냐그리면그놈호나를
위호야우리되소가멸망을호야올릿느냐오이네가잘말을아니드르면너샤지라
도죽여업셔겠다조식이라고엇그제엇은서방을위호야호은아비죽는것도불관호
는조식을살여두어무엇호겠느냐

신부가그말을듯고얼마썸반되를호라다가감안이성각호죽섯불이반되호다는속절

업시너외구물할싸름이지아모호함이업슬지라우두권니안졌다가
 (신) 누가 무엇이냐고 할 앓습닛가 아바지 처분되기로 할 시지 오싱사 탐죽은 일이 씬직스
 러서 진시되 답을 못 할 앓습니다

(아비) 허나 인들 그 일이 씬즉스럽지 아니 할 깃는냐 마는 씬즉 할 깃는 잠사한 덕 일이
 어니와 그 덕로 살너 두었다는 우리 덕소가 일시에 멸망을 당할 깃는고로 스세부득
 이 할 노일이 다 너는 그런 줄만 알고 일호도 그놈에게 스식을 그치지 말고 일종 더 정답
 게 구려라 오날 밤에 네오라비를 식여 그놈을 저루 속에 다 집어 너어바다 물에다 드리
 르일레니 부디 누어 잘 씨에 그놈은 아리목에서 자게 할고 너는 웃목으로 멀리 스죽이 누
 어 자거라

(신) 예시거시는 덕로 할을 깃는 죽일 제 죽이 드리고 몹시 씨리어 너모 앓호게 나 말는
 고일으 십시오

(아비) 오나 그노그리 할여라 죽는놈을 굿 씨릴싸 둬야 잇는냐
 신부가 날이 맛도록 아모는 처도 아니 뵈이고련 연이 잇다가 급기 자리를 펴고 누어 잘 씨
 에 신랑을 향하여 비밀히 저지 집전 후 다투어 일을 하 말하고 저지의 복을 받고와 입피여
 웃목에서 자는 체 할다가 몸을 씨쳐도 망할라 당부 할고 저지는 신랑의 속고의 저스만 입
 고알리목에다 불을 쓰고이 불을 쓰고 누엇더라

이 씨에 주가 형제가 제자식 스중 형제를 불너 큰자루를 주며 알르기를

이인녀의 들은너모우악 할게 그놈을 씨리거는 상 할지 말고 이자루에다 감쪽 갖치 집
 어너다가 바다에다 드리르려라

네누의는 웃목에서 잘 깃는니 불을 켜볼 깃는 업는이라
 제놈이 덕답을 할고 신방으로 가서 두놈은 압뒤 문을 직기고 혼놈은 방안으로 드러가아
 리목을 더듬더듬 하니 과연 신랑이 따로 누어 자는 모양이 어놀 불문곡직 할고 자루를 받
 길에서 부터 슬몃 슬몃 밀어 너어 저지를 넘어서 냇가 그제는 와락 치쳐어 씨잡아 디고
 제아오놈들을 불너 드러부축히 들너메고 풍우 갖치히 변으로 다라는 힘을 다 할야 회중
 을 향하여 집어 더지니 가련한이 팔녀인이 죄 업시 슈중고 혼이 되엿더라

만득이논그놈들이 신부를 자루에 너어 씨메고 나가는 광경을 보고 숨도 크게 못쉬고 잇
 다 그그놈들 나간 뒤에 슬몃시 이러는 남복을 몽둥그려 엮헤다 세고 너복입은 처로 감안
 히그놈에 집을 나와 멀리 스죽이 도망 할야 스죽 할곳에 은신 할 앓다가 첫 씨벽 떠는 난부산
 으로 오난 비를 타고 올 씨그비 부리는 스공은 곳 주가 에 할레 비라

주가가혹시 만득을 싣포 할는 경위라 다다라 나지 못 할도록 할노라고 미리 단속 할야 남
 자형인이 어던져서 허신분을 도스 할고야 건너 주라 할 앓는 덕 급기 만득에 형식을 본 즉
 혼녀자이오 남자가 안임으로 신지무의 할고 부산싸지되려다 주엇더라

주가는 박승지아 달을 임의 죽여 스죽아 모염여가 읊다 할야 제설유무논의 심도 아니 할
 앓더니 급기 날이 발가늯도록 제설에 동정이 읊는지라 괴이히 녀여 신방문을 여려보니

아모도업는 텡빈방썸이라 원집안이 황황하야 스면슈식하다가
익뎡편협흔게집으히가박가를싸라바다에가빠져죽었다

하고무도흔놈드리송장츠즐성의도아니하고치지도의하얏더라

그식벽에한득이가비를타고함딩에를버셔는만경창파를건너오며싱각을하니자괴
목숨살아는것은다히하나신부의자괴디신성명을쓰는일이하량업시츄혹히셔오장
을에이느듯자최업는눈물이흘르는줄을세닫지못하더라부산와하륙을하야엇의로
향할방향을모로다가문득운유암의씨주던글을싱각하고하난말이라

운유암은츄신승이로다나를살히하라는원수주가의설이자괴를살넛스니첫귀에
괴록흔바원슈가변하야은인이되다는것은마져거니와둘제귀는또웃더케마조려
노내가이길노련광정을쳐져가보노일이올라

하고남복을도로밧고와입고달포를싱고하야평양쌍에를당도하얏더라평양쌍에을
가기는목덕이런광딩에잇는고로드러가는길로련광딩에올나가니놈흔마루위티흔
난간에먼지가발이빠지게쓰여스름의자최가오리싹천모양이라심중에의하하기를
알슈업는일도잇다 이런광딩은조션의유명흔곳이라스서에가무가위일날이업고
티인거괴이라력부절하더니오날더먼지가쓰인것을보닛가사람이별로아니단
인모양이니그아니이상흔일인가

하고웃자락으로란간에먼지를날이고흔노비겨안저원근을바라보니그제하철월망

간이라티동강두언덕에장마흔적이나아잇고능나도쇠흔버들에점은연괴가씨엿더
라스면현판에네스름의삭인글을츠레々々보다가홀연운유암의글이싱각이나셔기
등에가비겨이식도록홀로섯노라니부중편으로셔엇더흔뿔웃치절문녀인하나이는
물이압홀가리위덕々업드러지며창화히딩자압흐로와셔이리저리두루々々숨혀보
더니정조뒤로올나와조괴를향하야무슨말을할듯할듯하다가도라셔져죽죽울기를
멧츠레를하느니라만득에마음에심히이상하야는죽흔말로못는말이라

(만)웬부인이시온티저리설러울으시며무숨말숨을하셔고져하느닛가

(너).....

(만)이스름은일시파괴이라부인씨저숨엿주음은실례오나무숨꼭절이게시온지말
숨하셔기를바라느이다

그녀조가손수건으로눈물을이리저리씻고도라셔고기를쇼곳하고나죽흔가는목쇼
리로

(너)저는본부정리방의며느리온티

하더니목이적々며여말를쳐못하코을기만하느니라만득이싱간에
아마저게집이형실이글너음분을하야나온것이아니면식부모의게구박을당하코
악한마음으로도주를하야나온것인가보다아니그도그럴슈가읍는것이형실이글
너음분을하거나비심두고도주를것갓호면모야무지아모도모로게왔슬터이지빅

쥬티도종에서러케나아왔슬리가잇나 좌우간 단단히 좀 무려을 보리라
하고 녀즈를 향하야

(만) 여보시오 우름을 갖치시고 말씀을 저세하사오

(녀) 말씀하기가 녀침처가 업고 불안하와셔 감히 친구를 못하옵더니 이처럼 무르시니 옛
줄 겹습니 다 이 달 초싱 브터이 곳에 괴질이 티치하와스름이 슈업시 죽는 중인 티데일
우리 집 윤슈가 더욱 흉하야 식부 모니 외분과가 장과식 동싱니 외와유차에 어린 것싸
지당일너로 모졸이 폭스를 하니 부종스름 남녀를 물론하고 초상아니는 집에서 노인
스줄을 모다리고 교통을 엄금하니 지산은 업지아니하나스름이 업스니 젊은게 집 혼
조그송장을 웃더케 처치하는 수가 업서이 모양으로 나서기 노무론 엇더하냐 남조이던
지지는 시는 것을 뵈오면 이런 스정을 말하야 시례만 다치어 쥬면 백년을 섬겨은혜를
갑고져 함이려니아 모리 좌우를 숨혀보아도 맛는지 못하을너니련히오로당신이이
곳에 계신 것을 뵈옵고 올나왔스오니 불상한스름을 구제하야 주시기를 바라느이다
만득이가그말일장을 드르니코히리가시고모음에 측은하야 장티그녀즈와백년동
거함은고만두고그정경이극히절박하야아니구제히쥬업는지라그리하라
꽤히허락하고그녀즈를싸라련광정에서너려서부중으로드러가니과연길가에
마쥬잡이송장이락력부절하고이골목저골목인줄을미여스름에통행을금지하거
늘형술이허락하고화렴중에드러오니모음에넋웃기는하나장부가세엿던칼을도

로뺏는슈도업고넋웃는마음보다측은흔모음이압셔조곰도쥬져치아니하고그녀
인에집으로드러가니집이별노광렬하지는아니하나수심간키와집이비들기장찌
이듯하얏는티창호란간과쥬렴부벽이극기선명하야쥬안을정결히초려다원호후
신체잇는방을차례로가라치며

(녀) 인셔방남이이화렴중에위험함을혜으리자아니하고이스름을위히드러오신일
우싱각하오면여간감스하되셔는말이아니되고분골쇄신을흔티도우혜갑홀일이
업습거니와괴왕데몸을살이시라고드러오신터이니저송장들을이뒤것히다가구
덩이를파고못어쥬시고이스름과함께아모티로던지가셔스옵시다

(만) 송장을아니무더주라면이러케싸라왔슬리가잇겟소송장은못으리다마는나는
집도업는한길인인티만장곳흔티을너버리고엇의를가조고하사오

(녀) 아나오내가아집에는잠시잇기도지긋지긋하고또는내작정이누구던지저송장
만처치하야쥬면몸을허락하야백년히로를하조는작정이온죽당신의빈부를혐의
홀리도업는중집에잇는경보의지산을다가지고나서면실흔말개설어도티여섯바
리는될터이니그것만가지면엇의가져살기로한평성못견티오릿가

그는념려말으소서

하고다락을열더니륙진북포슈십필을너여쥬며

이것으로저송장들을모조리초초감아추다르기도케하시오

혼조은전하시기어려오신되나와맛드려무드십시오

만득이가 답하고그베를가지고그여러송장을모도다묵거뒤스껏위인밖에다피고
못고나니귀골성장으로평성에힘드는일을못히보다가그흙흔일을하고나니이마전
에간장맛흔쌈이뚝뚝떨러지고숨결이헐헐스스급급야지더라

너인이그즉시로부담놓짝에다갑전의복피물등속으로돈양싼물건을모조리담아짐
을뒤여노은것이그렇령저오륙티라만득을향하야

서방님우리가되와가되야살바에이곳에잠시라도지체하는거슨만만불가하니이
압근길러각집을쳐져가서서사말을엇더이롱을설이고서방님의향잇는되로아모
되로나어서가십시오다그런되말일곱필은물건을설이고두필은우리가타고갈터이
니

만득이가응낙고즉시려각에나가작말을엇어롱은설이고말두필에부담을하야그너
즈와각기흔필식라고길을떠났는되너인이말하기를

너집이형제하고살던터에이모양의되야서근처에서는남이붓그러워못살것슨죽
서방님고향이엇디신지그곳으로가서조고마흔집이나흔아스고의복피물을모다
팔아것처럼밭날같이논마축이나작만하야살으십시오

만득이역시즈고고향갓갓히가서살며쥬가에거취등정을드러보아셜분을하야불성
각이드려서

(만)과연이근처에서살기창피하다는말은스실상용혹무괴오마는나의고향은령남
산협이라이런변황지지에서살으시던터에잠시견되지못할듯하고

(너인)그는조곰도념려마옵소서이곳이요모리변황하오나평성에규중에잠겨있서
문밖계를안이낫스오나산협에가시기로무엇시못견딜바잇스오릿가왕리지인
이번다치아니할면기울에나아가마전도하고동산에올나가나물도키면오히려서
원하겟스니즈저치마르시고어서서방님고향으로가십시오

즉시령남으로가기로길을떠나났지면흙씨가다가밤이면쥬막의드려너인은안에서
자게하고즈고는밭갓방에짐을드리싸고짐을직히노라고그압해서잠을자더라

문경시지로넘어가노길에충쥬읍으로살스디곳치통하얏는되식지셔넘어오난형인
이나식지로넘어갈라노형인이나열에옴은충쥬읍에서누어즈고길을가노고로
만득에일히도충쥬읍을당도하야끔직하고정결흔쥬막을쳐져드러가여전히너즈는
안에스쳐을치우고누어즈게하고즈고는복로방에짐을드리쓰코그압히셔잠을즈더
라그씩충쥬읍에세사유리로잇던비석흥이라하노자는준민고턱흔제물이경년일
부로스는중호식하노란류라뵈곳치절문계집을숨스명식두구고도유위부족하야읍
촌잔유부녀통잔하기로능스를숨으니그자의세력이두려워서아모도감히말흔마디
를못하더니공교히쥬막거리의를나아와다가만득에일히드려오노것을유심히셔
보더니방황쥬저하야도라갈줄을몰로니이노만득의령거하야가지고오노제물을혀

욕님이 아니라 만득과 동행하니 인에 인물이 일석인 것을 보고 희속애음 흥을 잊어 슬며
이성기여셔 그리하다 가 만득과 그녀 조사이 에 유작이 극공극 명하야 열모로 뜻더 보아
도너외 곳지를 아니 하니 제 집으로 드러 가 곳하인를 석이여 그 유막 주인놈을 불러 드
렸더라

(비) 이이네 유막에 오날이 상서러운 형인드렸지

(유막장이) 엇던 형인 말입시오 별노 이상한 사람은 업는 걸 입시오

(비) 웨 무슨 복되를 더 여섯바리나 실니고 남조하나 동행하야 오지 아니 할 것
더냐

(유막) 예그런 형인은 드렸습니 다

(비) 그리그 일형이니 보기에 노 이상처럼 지 아니 할 더냐

(유막) 무엇이 이상하와오

(비) 그 남녀가 낯외 갖더냐 남미 갖더냐 타인 갖더냐 되가 아싸네 집에나 있갓다가 그것
들에 형석을 잠잔 본즉 분명도 망군이 못기 에너도 무슨 눈치를 보았는가 하야 웃는 말
이다

(유막) 도망군이 지는 모로 갓습니 다 마는 소인보기도 되외도 아니오 남미도 아니오 하
유타인 못지도 아니 할기 논하온 뒤 제 집인 죽미오 똑하와오

(비) 응제집은 썩똑하와 더라이이 그리노 그것들이 한방에서 자는 모양이 더냐

(유막) 아니올시다 제집은 안에 서쳐서 방을 치우고 소니놈은 밤갓복도 서방에서 설여
가지고 온 짐것히셔 잔담니 다 그러하온 뒤 할가 지수 상하 옮기는 제집은 안사쳐서 방
에서 못치자커니 사니놈은 짐잇는 뒤 의셔 자야 할터이니 걱정 말노고 피쳐승강하
던일이야오

(비) 오냐 두말하라니가 그 제집을 썩으고 말터이니 너는 더 말되로만 똑하여라

유막 주인이 눈이 둥그리치고 입을 썩버리더니

(유막) 예그 천만의와 말습도 하심니 다 그러곤 일나 게오 공연히 소인 유막질도 못히 먹
고살나고 그리하심지오

(비) 예무슨 잔소리야 큰일이 나 도너가 당할터인 터네게 상관이 무엇이 란 말이나 잔
말하코나 석이논뒤로만 하야라

(유막) 엇더케 하랍시오 소인에게 할만습스면 거행하다 썩히오니가

(비) 이미련호것하석인니가 있논뒤 세 상하 옮기로네게 할도라가게 할리가 있나네 집
안처에서 복노로 나가논 중자에 일각문잇지 아니 할야

(유막) 예일각문잇기는 흠니 다 마는 닭기울도 복스름이 그문을 닫아 본적은 도모지 업
습니 다

(비) 아모리그리히도 오날 밤에논 특별히 그문을 안으로 단단히 걸노고네쳐다려 당부
하코너는 밤갓복로에서 누어 자면 안에서 아모 소리가 나던 제일 절소동치 말고 못드

른체만하리라 그리고네쳐다려우물길로 통하되 문은 고리를 걸지 말고 지쳐만 두라
고 하리라

(죽막) 령과분부가 그러하시니 그되로 거행은 하겠습이다 마는 만일 뒤에 무슨 일이 생
기 드리도 소인에게는 아모 침척이 없게 하야 주옵소서

(비) 오나 그는 거정말이라 나가 아모리기로 네게 무슨 일이 잇게 하겠느냐

비가 죽막 주인을 너 보시고 희불죽송하야 밤들기를 기되려 조최업사 죽막 집뒤 문
으로 들어가니 그녀 조가 잠이 곧히 들렸다 가 섬썩 놀나 소스로 쳐쳐 여벌씩이러 안조며
소리를 닦쳐질은다

에 구머니이게 웬놈이야 여보박서방님여보 주인

비가 손바닥으로 입을 느러막으며

소리 지르지 마오야 모리 소리를 지르기로 내가 귀왕이러 케드러온터에 그되로 공환
를 할 듯 십소

녀인이 별々 쓸며

여보당신이 누구인디 남녀가 유별하되 무단히 이러케 드러왔소 무엇슬 욕심녀여 온
터이면 모음되로다가 저가오

녀인이 그말을 겨오하고 머리에 켜진 반희귀이키 손에 센가락자고름의 촛피물 등속을
낫낫치글너너더니 비가 썰々 우스며 나를 도적놈으로 아난구면내가 어되로 보나도

적놈갓소이러 케맛는는 것도역시런정열분이원다

하며 달려드러 손목을 잡으니 녀인이 손을 썩리치며 세상 업시 소리를 질너 도박게서 드
렸는지 못드렸는지 천귀잠々 만귀잠々 하야 어리천기 샅기도 드러오지 아니하니

모음이 칼날갓고 형실이 송죽조하야 죽기를 일호도 두려워 아니하니 열절부인 안인바
에 연약한녀 조로 었지 우악한 남조를 당하리오 그녀 조가 모야 무지간에 흉악한 비가를
만나 셈작 못하 고 봉욕을 하엿더라

녀인이 비가를 보고 눈물을 흘니며 하난말이라

(녀인) 여보시오 보아하니 점조는 량반이니 깨무슨 허거오

(비) 허거 될것이 무엇잇소 탐화 광접이라니 불시례소의 일이 지오 그러나 어디스노부
인이며 밧갓히잇는 자는 었지되는 스름이오

(녀인) 에그나 논평양부중에서 살더니 올에 몸슬 운수를 당하야 식부모니외분과 남편
식동성원집안식구가 일시에 괴질에 걸이어 밤낮나 홀니로 모조리 세상을 버리니 만
가하게 살든 집안에 산스름이라고나 할아 썩남앗스니 그신체를 처치하는 슈가 업서
이웃스름에 게나 잔령을 하조니 그 병은 동성스출간이라 도통너를 아니하랴 교인스
줄을 밍다 문을 돌나닌다 하노되 누가 남의 일에 화렴중에 들드려와 보와 주겠셔오련
우신도 하야 밧갓헤서 좁으시논그 양반을 맞나 이시례곳치워 주면 백년을 갓치 살갓
노라 하엿더니 그 량반이 정경을 측은이 보와 그리섯던 자나를 욕심녀여 그리섯던지

그 흉악한 시례를 모다 염습하여 업도를 하여 주셨는 고로 처음 약조를 저바릴 도리인
스가 업서 지금 그 량반에 고향으로 싸라 가는 길인디 : 이 노릇을 엿지 않으면 조흔가 오
비 그가 또 한번 박장 디소를 할며

(비) 나노 별일이 나 있다고 그러면 그자가 디장스군이 오구려 디장스군이 면 디장사 전
만 후히 무려 주었스면 고만이지 무슨 걱정 될 것잇소 그 사 전은 저 달는는 디로 내가 무
러 줄 것이니 나와 기럭기 한 박년스라 봅시다 그러

(녀) : : : : : :

(비) 웨 말을 아니 할오 당초에 그자와 약조는 엿디게 하였든지 그자와는 남스끼리 어니
와 나와는 너의 간된 이상에나 할라노 디로 말을 좇추야 도리에 올치 아니 할오
녀인이 일향을 가 망을 할고 안져다가

(녀) 홀일 업소니 마음 이글녀이지 경이 된 것은 아니 오마는 괴왕당신의 계육을 당할 앓
스즉 키도야지 안인바에 다른 남편을 좇는수 업스온 즉당신은 나 홀몸을 디려다가 굶
기던지 벗기던지 처분 디로 할서고 나가 저 고은 일반 지 살은 디스름을 주어 선세를 갑
겟소

(비) 그리 할오 녀형세가 총쥬부중에는 첫손가락 삼을 만흔 즉야 씨호분면 기고 입히기
노녀 녀 할오 녀말고 열전 혼판 남길 것 업시다 녀여 줄 디이거던 주구려

(녀) 그러나 무슨 낫을 들고 말을 할나 말을 할야 순종을 할면 조커니와 : : : : :

(비) 무슨 소리오 그러케 할노 디제가 무엇이라 고반 디를 할거는 디가 나서 다말 할 것
이니 걱정 말고 잇서

그럭저럭 날리 밝았노 디만득은 향여나를 간짐에 손이 탈갑아 극히 조심 할며 잠을 스로
자고식 전일 즉안이 이러나 말죽을 저촉 할야 먹이고 스쳐로 드려와 녀인 다려어서 소세
를 할라 당부 할 초로 물을 열고 드려다 보니 엿디 홀풍신도 혼남조 혼나 이녀인 파여기를
견우고 안져는 지라 더럭 패심 홀싱각이나 서방문을 도로 탁 닳고 노괴 파등 할야 두어
거름을 나오란 닳가 녀인이 좇추나 오며

(녀) 여보 박 서방님이 리오셔 스니 말 좀 드르시오

(박) : : : : : :

(녀) 이 일이나 만척 망할 실 것 아니라 서방님도 얼마 썸줄 못이 온다

만득이가 그제야 해기도 라서 눈을 부릅뜨며

(만) 너가 잘못이라니 엿디게 할노 말이오

(녀) 서방님이 스름보다 지물을 더 중히 알으시노라 하시지요

(박) 엿디게 할노 말이오 녀가 스름보다 지물을 더 중히 알다니 홀말이 업스면 그저나를

쳐죽이오 할지

(녀) 아나오 그런 것이 아니 오서방님 디말 디로 전시 스처에서 동거 처를 할 앓스면 무슨
일이 잇서 쓰오릿가 마는

스름슈직홀싱각은아니하시고밤마다짐씩만슈직하시노라고복로에서좁으시고
나논게발들어더전듯이홀노자게하얏스니무식변괴가아니싱기오릿가더방에안
즌량반이나홀로조는근믹을알고밤중에뛰여드러와강포지욕을뵈이니독불장군
이라계집스름흔조아모리순종치아니하랴면되겟슴잇가필경은욕을당하얏는디
욕을당하고싱각을홀죽내가로류장화가안인바에홀번몸을드랜것도원통흔디또
당신에게몸을허락홀슈업스니내싱각은인제노말으시고우리가지고오던지물이
나가지고가십시오그것만가지섯스면어디를가시던지나보다빅비나은계집이라
도가히엇어걱정업시살으시리다

만득이가괴가릭혀아모말도못하고섯다가션々하디답하기를

(만)그러갓소내가하상지물을스름보다중히녀인것이아니라괴위피초에금석지
약이잇슨이상에천착하계구는것이피초레절이안일쑥하야초々신티에가서정돈
홀후에정당히녀외를밋조홀이러나다려도로허무정지척을하니이논어식홀에
서나옴이니김히말홀가치가업고지이지물하야논이스름이이모양으로의지업서
동서로표박은할지언정지리에욕심이잇서남에서레를미장하러단아니하논
터인즉그런부당홀발을말고아모조록도흔남편과즐살르시오나논갈디로가오

(녀)서방님께서이스름을글은위인으로인당하시고저처럼말슴을하시논것이오나
스세형편을널이싱각을하야보시오모야무지적々홀빈방에서연약홀녀조가불갓

흔욕심으로뛰여드러온남조를저당하논도리가업서쇼리를질너스름을아모리불
너도아모도오지논아니하고서방님이밧고아그지경을당하시기로모면하논슈가
무엇이오잇가그런즉김히싱각하야용서하시고그지물을가져가시오만일서방님
이그디로형々히가시면서방님은혜를티산々치진인년의죄가더욱몸들곳이업스
오니심분통촉하오셔이무도하고의리업는년은싱각지마르시고변변치못한지물
이남아가저가옵소서

(만)그는내쑥을임의정홀바이니여러번물홀필요가업소나로물홀면련광정에서초
면으로딛맛나화염중에서레를쳐우려드러갈제하상다소잔지물이잇슴을알고희
망을뚱이아니갓고다만그디에정경을죽은히녀임이오지물노물홀면그디가주인
이라그디가온넋가지물도가져왔거니와이제그디아니가논이상해그지물을주인
안인니가일호인들가져가리오이논일시나를위로홀애지나지못하논일이니다시
논키구치물나

다시논그녀인에물홀드른체도아니하교죽장망혜로쥬막문을썩나셔니련디가망々
하야향홀바를모로다가문스득운유암에글이싱각이나논지라흔조물로

운유암은가위신인이로다련광정에서것짓인년을맞느리라더니이변나의쇼경력
을싱각건디일호초착이업지안은가그글귀에탄금디에서길인을맞나리라하얏스
니에라탄금디나초져가셔하회를좀보리라

신이 죽을 위경을 몇 차례를 겪다 못하야 오늘날 이런 분혼일까지 당하얏스나에구
 제집아니 웃기논어렵지아니하지마는 루터혈통상전하던우리집이너더에와서
 처질일이과가막히지.....

이런줄알앗스면 당초에 똥도스에서나오지를아니하고종노릇이나할것을운유함
 이더스하고말류하는사슴에못의의여나섰더니고금도에서그참혹한광경을보고
 련광정에서그몹슬제집을맛나이런분혼소조가성기엇지.....

에라분히녀일것도엿다그게다나의팔조소관이니라조상의득죄는할지라도다시
 제집을아니엇더스면다시야그런소조가설마잇스랴

하며슬며이감구지회가는셔두눈에서눈물이시알솟듯하느니엇의셔장지화의어부
 스를길게읍조리는소리가들니며강변에스름그림자가췌뵈뵈에열는얼는비취더니
 엿더흐노인이낙사사티를드러매고강변루로올나와만득을물그림이녀녀보다가낙
 사티를바위우에노코만득에것히와안지며

(로인) 이랑반어디계신랑반이신디예와이러케안저게시오

(만) 예나논령남스읍더니셔을을가느길에탄금디구경을하노라고안저쉬옵니다

(로인) 보아하니두눈에눈물흔적잇슬제는무슨억을흔희포가잇는모양이니이늘
 근이도희포가평탄치못흐스름이라동병상년으로듯기를바라오

(만) 로인장에말씀은감스하오노소실에억을흔희포는드르셔쓸티잇는잇가

(로) 쓸티야무슨쓸티가특별히잇겟소마는지금너가져바위너머셔고기를낙고안졌
 노라니엇의셔신제조탄하느말이들이논디하도이상하기로잇처럼와셔못논말이
 니말씀을하야늘은스름의희혹을식이미엇더하오

(만) 로인장게셔귀위소실의조탄하느말을드르셨다하오니번거히녀이심을무릅쓰
 고말씀을디강고하오리다

(로) 번거가다무엇이오별말을다하시오어셔말씀이느하시오

(만) 소성은경상남도스읍더니조실부모하옵고류리표박하야엇던셔음중에를드려
 갓습더니그셔음에웃던부요흔자가스위를삼기로쳐덕에몸의탁홀은남아에바루
 혼일이오느적이며음에든스은하읍더니급기피초의리력을조제히안죽적지안인
 원슈척이라소위장인과쳐남되느조가비밀히계교를디여소성을살히홀야하느것
 을다히히릴절잇는신부를맛느소성을뒤손쳐도망케하옵고신부가디신혼악혼
 임을당하얏스오니그일이어디까지출혹하야모음이홍상잇치못하읍더니이번
 에평양을갓다그엇지기딴히느소조를당하얏느지다시장가를성각도업셔지고
 제쳐량혼싱각췌이올시다

(로) 허하엇더흐소조를당히게시오리악이하느뜻히마조드르봅시다그려

만득이가일끝에분혼괴식이낫다느며

(만) 평양에너려가느길로련광정에를올나가셔스면경치를구경하며이리저리비회

호노라니 엇더호쇼년녀가 정조위로 노와이연호소리로 올며 말하거 들쳐는 평
양부중에 스는 정리방에 머는 리음더니 금년에 시운이 불행하야 괴질이 나려는 성형
호며 일부중에 사망이 상속호출나에 집에서 더욱 침혹호화를 당하야 원집안식구가
일시에 몰스하야 적시가 지상하얏는 디동리사람은 아모도 들여다보지 아니호고 제
집사람 홀로 미장홀과 망이 업쓰오니 려치 업는 말라느시례 들미장하야 주면그런은
해가 업벧다호고 목이 밋쳐설계우는 양호보고 서측은 호모음이 한음시느셔그리호
라 하락을 호얏습니 다

(로인) 그리셔오

(만) 그제집을싸라 제집으로 드러가 모은속과 연이방더방에서 데가 즐비호거슬추레
로 목거미장을하야 주엇더니 그로인이 빅비쳐사호며 제집에잇는경모의지산을모
다가 지고 소성에고향으로가셔 빅년을살조호읍기 저숨불가함을말하다가 마지못
하야 집을추려다섯바리를실고 소성과 그제집은각각부담말을차려라고고향으로
가는길리온디

(로인) 그리셔오

(만) 제집은주막에들적마다호방거처를조호는빅년을조치살작정을하면서그리
조급히굴필료도업고또는적지안연적물을엇의사지던지잔슈를아니호고말스군
만맛겨니버려두기가미심하야밤마다제집은별노히스처에서조게호고소성은심

짜잇는복로에서누어조더니잔밤에도출주를주막에서그방법되로누어조고서벽
갈를떠날조로제집조는스처에를가온죽엇더호신소남조를되리고싼스처럼게호
는말이그디는지물만중히녀겨슈지호기에골물호고사들은천히녀슈지를아니
호타스로잔밤에가포지옥을당하얏는디급기옥을당호이상에또다른방을엇을
슈업고당세부득이이량반과조치살게되얏스니당신은가지고오던지물이나가지
고가셔다른비필을엇어살나호며스기가링락호기로제집에조셔변기호형실이절
통절통호오나괴위그지경된제집을류련하야쓸터업고또는미장스군이한인바에
남의송장못거주고지물초지호는것이비루하야비가지물에욕심녀미장하려다
인사름안이니그디말으루변도말고도호남편과아못도룩잘살나물호마디썩호고
지금에싸지완습는디전후쇼경녀성각을호면한심호회포가조연나셔그리호니다
로인이듯기들다호더니

(로) 허스세상에무도호제집도잇소제가적의의리가잇는제집조호면무로웃던놈이
강포로욕을되이라던지찰라이죽을지어덩져호아를위하야위험을불고호고화렴
중에를뛰여드러가그호호송장여릿을무어주기싸지하야준은안에게제임으로빅
년을동거호조하야노코그모양으로변키호얏단말이오

(만)

(로인) 그사위의리부동호제집을싱각호고천금갓호니속을상호필료가업고또는그

계집이 아니면다 시계집이 업소 다른녀 조와 아름다운 언약을미져유조성녀고너
보란듯시스라 불결심을할것이 지그만년에 계집분하야 다시 장가를아니들고홀아
비로하는것이 다무엇이오

(만) 아니올시다 할필그계집에 계집분하것이 아니오라 소성이 쳐디가 가속들형세도
못되고 계집으로하야 스디을슈초병호바를싱각호오면또 계집을어드라하다가 무
슨위경이잇슬는지도 모른죽어쳐피의홀라비로하거죽기를결심하얏는이다
(로인) 그야 무슨그럴이가잇소문져후하면나중에길흔거는런디에당흔리치인죽그
러케옹식히뜻를두지마르시오그러나고향이런남이라하니런남이면언의고을이
딕고향인가오

(만) 소성이 남딕하야고향과성명을감추고바로말을아니하얏슴이다마는로인장이
이처럼무르시노터에엇지감히그망호를닛가소성에고향은밀양읍이올시다

(로인) 밀양읍이면뉘딕이시오

(만) 예제성은박가올시다

(로인) 박서방이면딕호가누구시오

(만) 소성에선천게서이왕승지를지니셔슴으로스름마다박승지집이라고불음이다
로인이눈이둥그리셔흔총무슨싱각을하다가또다시못기를

(로인) 그러면로형선장이게사년에상스나사지아니하섯소

(만) 아니올시다 갑오년에상자나섯슴이다

(로) 을치갑오년이로구변로형딕에화지난일이잇섯는요

(만) 예선천상서나신지몇달못되야화제가느셔쥬초만남고물소를하얏슴이다

(로) 그계웬일인가알수업는일도잇다

하고무슈히연구를하느모양이라만득이가괴이하야

(만) 로인장게서소성에집일을이왕짐작하시던가오

(로) 티강짐작은하오마는한가지알슈업는곡절이잇소구려

(만) 무슨곡절이사온지무르시면제사정되로는엿자올이다

(로) 나뉘기에는선장에혈속이라고는만득이라노아달하느썬인디분명히화지당홀
씨에살라노오지를못하고춤혹히죽어서로형딕이아조복종절사가된줄알아노디
지금로형에말을드르이이상히셔그리하오

(만) 예그러하시올이다그러는소성의력사를드르시면지리도하실것이오또엿줄필
요도업스오니갑히무르시지말르옵소서

(로) 아니오니가남에일에귀터여다심히물을납던잇가마는선장과나와죽마고교로
정의가친밀히지냈더니선장게서는세상에뜻지업서향곡에서여연을맞치시고나
는환희에골몰하야슈십년흥전에잇드려잇노라고피초에과종을못하얏스느종々
교향스름을맞는딕소식을력々히듯고잇섯더니급기딕에화제가춤혹하야한낫잇

던혈속사지씨라는지를못하였다는괴별을드른이후로충충한마음이잠시있지를 못하든초에로형을맞나말를드르니호이엄시반갑기는하오마논의단은엇의사지 업지못하야지슴무러보논말이오

(만득)이가그말를듯고두눈에눈물이펑그르돌며

(만)로인에존성이누구읍신지션천과죽다고교라함읍시니던터에게선부친를다시 뵈오나달음업는이다시성이진시경력을바로그함읍지못하온거슨형명에위험호 관제가잇스옵이로소이다

(로)내가누구라한터도짐작할논지논알슈업스노로형덕마존편동리에셔살던터○
○이오

만득이가벌떡이러나로인압히절을하고꾸러안조며

(만)그러함읍시오닛가시성이만득이올시다시성어려셔말슴을듯조은죽의관으로 게실벽에서성에집잇던거너마을셔살트시더니서울로반이함신후벼슬이되신지 위에게시다함읍더니엇지하야이곳에를형초히게시온잇가

(치)허허조네가만득이란니허소를호네나노심々하야소풍초로잠시에사지왔던터 일세마논나듯기에는조네가씩살지못하줄노알오논터디관절엇지된일인가엇의 좀드러보세

(만)존장씨셔못지아니함읍시기로말슴아니별줄리가잇슴닛가시성이말슴을호자 면흥격이막히는이다

(치)그럴것무엇닛나스름에운수라는것은순환하논법이니이압만잘되앗스면과거 스는다부운이될터이어늘님오상심할것무엇닛는진당을호고어셔라약이는호소

(만)서성에집에선천씨브러신임호던주오위장이란자를혹짐작하시는지오

(치)알다썬인가내게도친근히단이엇는걸쭈흥색이말이로구면

(만)예을습이다그자에정종모발이시성에집의셔났습논터

(치)그리셔그자가물슨짓습호앗나
(만)예말슴드르심시오션천게셔각처에거리호논세음을모다월이맛하호앗습논터 선천하셰이후로일품도추심치못호옵고모다월에게건물을호앗것마논말호마디 못호옵고감스족갓치일엇습논터하로는시성이혼조자옴다가심회가불평호와바 람을쏘아려안마당에올나갓습더니난터업논연기가나며괴상호님시가코를찌르 음기섬썩늘는빛갓호로나아갈초로디문을열야호죽내문이밧그로절벽갓치겉이 엇습기겉이더욱는셔잔슈하야두엇는전답문원만가지고키구멍으로괴여는와본 즉집전치가모다불이당괴엿는터대문밧그로걸인것과불이호곳에서이러난것이 아니라이귀릉이저귀릉이스면서타는오는것을보니분명스름이일부러노은불이 음기소리를질너불을외라다가뒤동산으로뛰여올는가은신호고감아니안져동정 을보옵노라니과연쭈가오더니아모말일시말죽이셔서보다가집이거전달만호

닛가 그제야 불이야 소리를 질으며 다른 형랑 것들이 박아 지동의 등속에 물을 질어가
져와서 진심으로 불을 잡으라 하는 자가 있스면 큰 일난다고 갖가 하기가 말나가로 막
논양을 보고 감안나 생각을 하온즉 그 흥계를 더 강점하게 갇는 고로 그길로 자취업사
도망을 하와 양산통도사에를 드러 갔삽더니

(처) 저런 고성이 있나 그리셔 웃더케 되었나

(만) 통도사에 드러 갔삽더니 절쳐 부성으로 그 절에 운유암이라 하는 도승이 잇삽더니

(처) 운유암이 그저 살았던가 운유암을 나도 이와 몇 번 보았는걸

(마) 그저 살다 마다 오지금도 근력이 리오 좃든일이 오운유암이 시성을 보더니 더 단히
판타를 하며 저기 처소에서 류련케 하야 수년 동안 글공부 하얏삽더니 하로는 글제
귀를 지어 주며 말하기를 상공이 명문공자로 적막 혼산중에서 광음을 하송치 마르시
고 산밖 떠나야 아무 글공부를 누리라 하오며 나아가기를 지슴지 속하옵기 마지못
하야 운유암을 하직하고 그 절에서 떠나오니 향할 곳지바 이 업서 무슈 주저하다가 운
유암에 글을 생각하고 그 금도로 건너가서 었던 혼집에를 드러가 하로 밤조기를 청
하얏더니 그 집 주인 주가라 하는 노옹이 사랑으로 불너 드러서 반을 주려 주고 슈작을
에 말도 팔지 하기에 러워 인히 그 조의 집에 었더니 주인이 제 절과 혼인을 하조간 청하
옵기 품이나의 탁홀싸 하옵고 허락을 하고 불복일 성례를 하얏삽는 더 신부의 범절이

씩극가 하와 하오

(처) 그러면 지금 그 신부가 그저 었겟구면

(만) 아니 올시다 물을 드르십시오 몇 달 동안 신부와 온정이 깊히 지오니 몸이 진이고
단히 더 전답 문권을 신부를 더 주교이 것이 내 집 전답 문권이 나 줄 맞하 두라 하얏습
니다

(처) 그리셔

(만) 신부가 조그 부모 다 그러하야 이를 하고 문권을 뵈얏더니 그 때 마춤 주인에 형주오
위장이 라는 자가 단히 러와다가 문권을 보고 더 경실식을 하야

(처) 오! 그 주인놈이 주홍색의 오던 것이로구면

(만) 예을 습니다 그놈이 전답 문권을 보고 분명 불의 소 존성 된 것이 었지 니 러케 잇스며
또 사람이 그 전답 임자라 하니 그 임조는 별 슈업서 만득인 더 불에 타 죽은 만득이가 었
지 예와 잇더 란 물인 구하는 의심이나 서 날 밝기를 기더려 문구멍으로 시성을 었고
흥계를 더 제 조 절비를 식여 밤중에 시성을 동여다가 바다 물에 다녀오라 하고 제 절
다려 그 물을 아니 일을 슈가 업서 말을 하얏던 지 신부가 그 일을 시성에 게비 밀히 통하
고 시성 다려 녀복을 입고 자기는 시성 자리에 가이 불을 폭쓰고 자는 체하더니 과연 그
무지훈놈들이 드러와 큰 자루에다 신부를 불쳐 못쳐너어 들너 메고 나가 논양을 보
고 모골이 송연하야 그길로도망을 하야 오숙은 곳에 온 신하얏다가 식벽에 떠나논 때

를라고부산으로건너와련광명을초자갓다가이저경이되얏습이다
 (처)더러홍악흔놈도세상의또잇슬가그런놈신암하기도역시덕운슈쇼관이니과거
 스를상심치말고내말하마디좀드러보게

(만)무슨말씀인지라치시논되로호옵지오

(처)응그리홀터이기에말을하자네자네풍상경근것은조세드러내마는나에그동안
 력스를디강드러보게

하며처디신이만득의손목을잡고숨연흔눈물이웃기를저시논되위안강위에업아출
 연의논사라지고붉은수장에혼가흔빅구논나라니리더라

처디신이단의관으로밀양향데에잇다가세상에출각흔번하야불경륜으로죽마고교
 박승지를작별하고경성의올나와몇히적고를하더니흔씩필운슈로일번복직을하다
 협판되신거지하얏는다그러케벼살을단이노라니

하로잇홀아니고이로직고를할슈업서시골집을업시키고아조서울노반이하얏는디그
 설해강을늘기애나아서엇지류드물게사람을하던지유모를들씩셋씩두어잠시도쌍
 에너려노치를아니하고유야장철손뚫으로돌리며

금이야옥이야이것시하늘에서떨러졌는쌍에서소스노나뚫이되라다가네가되얏
 는나달리되라다가네가되얏는나

하야그부인김씨와들며나며안아도쥬고업어도쥬고

어허둥둥

얼너쥬기도하더니세월이쉬워서해강에나히륙철제가되닛가입학을식이여남조일
 반으로공부를부지런하하논되제지질이극히총명하야불과심세에문필이세취되야
 녀중리두가되얏더라제가부조오벼살이일품이오점하야규슈를그와갓치잘두엇
 스니누가아니욕심을너리오어제노박판서집에서등흔이오고오날은서판서집에서
 등흔이와서중의장이가날마다문턱이달로록드느들더라

(김)되감우리해강이흔인을엇더케하시라오

(처)엇더케하기는가압흔신랑이잇스면정홀터인되등흔은사면서드러오마는아죽
 가합흔터가업슨죽차々더구하면설마합흔흔처가잇겠지오

(김)되감너싱각애논게다가정히스면죽켓습되다마논

(처)게가엇의란말이오도홀터이면정히보지

(김)아니글세말이야오

(처)우리시골박승지의아달과정흔을하엿더히오그집범절은흔동리에서익히알
 고그이도어려서업고온것을보닛가곳줄싱기엇던데지금은되단히준수히습겔

(처)허하마누라논아모소문못드렷소구려우리서울로올나올나온지몇히아니되야
 그집이아조결단이나서스름을써도업서지고지금그집터만남으드오

(김)에그그게웬일이오그집에서나라에무슨큰죄를짓고그지경이되얏는오

(처) 아니 죄는 무슨 죄박승지가 근력이 못쫓더니 우연히 병이 드러 작고를 할 후로 그 마누라도 도라가고 그며느리도 죽었다오

(김) 더러 변보 아며느리라니 만득이가 별저 작가를 드렸던가오

(처) 별저가 무엇이었오 그이가 우리 혜강이와 자처 동갑인디 작가가 아니 드렸겄소 우리 혜강이는 남오고로다가 손을 넘겨야 죽시 집을 못보냈거니와

(김) 그러면 만득이가 작가를 드렸다고 속심랑 혼자 오구려야 마우리 혜강이와 연분이 이로라고 상처를 호모양이니 후취면 상관이었소 그외 화가 할 줄 생각던 것이니 우리 혜강이와 혼인을 합시다 그려

(처) 남의 리약이 논치듯도 아니하고 별소리를 다하거지 안소만득이가 나쁜 남고 그 집 식구가 모조리 죽더니 유위부족하야 연의 날 밤에 그 집에 불이 나서 만득이까지 참혹키다 죽었다 고합되다

(김) 더러 그 집이 움도 짝도 업시 망히 버렸네 그 집만 망한 것도 참혹하거지 마는 그 줄 생각만득이 죽은 것이 원통하거지 안은가

(처) 그사지 리약이 논고만 두고 우리 혜강이 덩혼 혼의 론이나 합시다 오날 어서 등 혼이 왔노디 그 집을 벌과 형세가 요부 혼것은 짐작하오 마는 인품에 후박과 심랑에 작인은 조세알 슈업스니 오날로 유모마누라를 보니 여인 품도 살피보고 심랑도 똑같이 보고 오라 합시다

(김) 유모가 보는 것이니가 본이 만하겄소 내가 짐쳐 조려 단이 논마누라처럼 시원히 보고 올터이니 그집이 누집이며 어디 동리에 서스나오

(처) 더러 송현소는 민국장 집이라오 그러니 마누라가 창피하게 계를 갈 슈잇소

(김) 창피하거니가 누구인지 그집에서 알터이오 창피하게는 눈으로 시원히 보고야 혼인을 정하겄소

(처) 이다음에 잘 정하느니 못정하느니 말듣기 실소모옴되로히 보구려

김씨 부인이 혈을 혼의 복을 슈스하게 초려 입고 민국장 집을 초저가 실랑을 똑같이 보고 왔노디 부인네들 눈에는 심랑에 얼골 빛이 희고 어엿부기만하면 다시 골을 것 업시 데일 조격으로 아논 법이라 민국장에 아달갓 처런 성부 족중이 성긴 거손모로고 회일을 그 림갓 처어 엽분것을 보고 김씨 부인이 삼박 반히 서 집으로 도라와 입에 춤이 업시 칭찬을 하야던지 처디 신이다 시알아 불여부 업시 혼인을 민국장의 아들과 피정하야 즉시 성례를 식혔더라 민씨 실랑이 장가 든 지 물과 몇달이 못되야 신음스스 병이 들더니 날스이 정제가 갑혀가 위석 혼지 주연만에 악착하게 세상을 하직하니 진소위 햇빛에 볼질은 일데 오검은 고로 학살은 광경이라

혜강이가 날마다 시스씩스로 신세를 자탄하야 한숨과 눈물이 굿쳐지를 아니하니 처디 신디외가 항상 보기 실여 늑기에 살리슬스니 릴디경이라

(처) 여보 마누라 우리 혜강이 일을 웃지하면 조탄말이오 그것의 나이삼스십이 되얏다

게는 남녀 간 제혈 속이 혼나잇는 것 또는 면설 위하거니 오히려 처지도 외를 할 것 소마
는 뜻으로 이르면 아죽봉 오리도 아니 진더 것이 고만 신세를 맞치느 일을 생각 하면 살
이 슬스니려서 진서져 보다면 저 죽어 그 슬아니 보고 심은 생각이나 구려

(김) 에구이 말씀 더 말씀 할 것 무엇잇소 그 저 별건 화저로니 눈설를 꼭 쏘시어 먹물을
쏘다 업지 고심 소내 눈으로 얼마는 위지목을 잘 보아 골나스면 그 슬락신이로 죽을
것을 몰나 보았슬 잇가

(치) 그 말은 히서 무엇호오 인명장단을 웃지 미리 아라 본 단 말이 오첫저는 제 팔조이오
늘지느 우리네 외에 신수로 닭을 봉으로 보아 천금 갓튼 내 조식과 혼인을 할 앓구려 보
기 슬인 티진시 죽기느 호야스면 도케 소아 조호스름이 저바리게 우리가 그것보다 먼
저 죽으면 그것 이더구느 기 밥에 도토리 가되야 신체가 더 말 못되겠구려

(김) 그러니 조식을 엇지 죽으라고 호단 말이 오좁은 내 생각에는 그것케 히스며 도케 슬
티다 마는 줄 못하다가 남의 위제 만 할 갑아

(치) 엇더케 하면 도단 말이 오으응알아듯 겿소 무엇을 남의 위제 아는 듯 모르듯 듯 주션
하기에 달나 엇지

네가 그 생각 이 별서 브터 잇습디다 마는 제 뜻도 자제 알수 업고 역시 사름시려온 자를
구하기가 씩어 렴 소구려

(김) 티감의 향이 그러하시면 내가 제 중정을 떠보리다 중정을 떠보아서 눈치가 과히 반

티를 아나하거든 말씀을 할 것이니 티감게서느 쓸만 한 사름을 스면 듯보시오구려

(치) 그리 할 것이니 너 걱정은 말고 마누라느 그 이다려 슬스리 약이를 할야 제 티답을 드
러 보시오 안이 감아나 잇소리 약이를 어두운 밤에 흥독기니 여밀듯 기어려온 티이
것을 가지고 말을 자아나시오

하더 벼상에 걸인 신문축을 뒤적스스하더니 그 중한 장을 썩여너여 김씨 부인을 주며
(치) 이 신문에 청상과 녀들 지가스라고 경고호는 론설이 잇스니 그것을 저다려 보라호
며 말 시작을 하시오

이씨에 헤강이느 천스만스에 내이 업서아 모일도 손에 걸니지아나하야 실성 혼 사름 일
반으로 뒤셀로 도라가 갓가지도 썩거늘 고을고 풀입시도 쏘어들고 올고 먼 산을 바라보
고 도울어 두눈이 통스부엇느 티 엇저녀도 굴머즈고아 참 밥도아니 먹은 괴질에 앓득스
스현귀가 나셔한 팔로마루란 잔을 집고 감안히 업티려자 최업느 눈물만 비퍼붓듯호느
양을 그어머니가 보더니 조그 눈물에서 도 눈물이 펴스쓰다 지며 갓가히와 헤강에 엇기
를 혼들스스

(김) 이이 민집아 올지 마라 그사저 죽은 사름 생각호고 우는 것도 꼭 절이 잇지 명석이
너와 너외지 혼인 할지가 불과 수삭이니 무슨 정이 갑혔느나 피덩이라도 쇼성이잇느
나 생각호고 올 것이 무엇잇느나 이이 미속 작스티오고 고만 방으로 드러가즈

(해)